

## 최근 인구이동 추세의 변동\*

김남일<sup>1)</sup>

### 요약

인구총조사의 인구 이동 추정 방법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이동인구 추정치에 영향을 주어 그 추세 파악을 어렵게 한다. 1995년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음에도 인구총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행정구역 개편이 인구이동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근 인구 이동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1990-95년 기간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체로 총이동을 다소 감소시켰으며 이동형태별 인구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90년~1990-95년 기간 인구이동의 추세를 보면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제거하였을 때 총이동수는 단순 조사결과보다 2% 포인트 더 높은 8.5%가 증가하였고 이동형태별로는 농촌 도시간의 인구 이동에서 군부의 순전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군부 순전출 인구의 감소추세는 일부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론

정확한 인구이동 추세의 파악은 인구재분포를 전망하고 지역의 특성별 인구추계에 필요하며, 또한 이들 자료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교통, 주택 등 사회경제 정책과 환경정책 등 공공정책의 목표와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최근 인구주택 총조사의 5년전 거주지 자료에 의하면 1990-95년 기간 구·시·군간 총이동 인구는 전기간에 비하여 3.2% 증가하였다. 이는 그 이전의 17.5% 증가에 비할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인구이동율로는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일 외, 1997: 12).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실제 인구이동 추세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95년 인구총조사 당시 각급 행정구역의 구성을 볼 때 전국의 도시수는 73개시로 1989년 이후 도시수는 변하지 않았으나 이전과는 달리 시행정구역내에 읍·면을 포함하는 통합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가 40개나 새로 생겼고,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는 행정구역 확장을 통해 시권역내에 군을 포함하게 되었다. (내무부, 1996; 한국행정구역총람 편찬회, 1995)

1970년 이후 인구총조사에서는 5년전 거주지를 조사하여 센서스전 5년간의 인구이동을 추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때 5년전의 거주지로 시·도, 구·시·군단위 까지만 조사하

\* 이 논문은 1997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604-714)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0, 동아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고 있으므로 인구이동의 정의로는 구·시·군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이동만이 인구이동으로 간주된다. 이와같은 인구이동 조사방법 하에서 전술한 행정구역의 변동은 이동인구 추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바른 인구이동 추세를 파악할 수 없다.

이전에도 여러차례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으나 1990-95년 기간 중의 행정구역변동과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 이전의 변동은 대부분 작았고, 또한 그 변경의 방향이 이전의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광역시 또는 시로의 승격, 성장하는 도시의 행정구역 분할 등을 반영하여 단위행정구역(구·시·군)의 수가 분할 증가되어가는 경향이었으나, 1990-95년 행정구역개편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단위행정구역이 통합 감소되어가는 방향이었다.(부록 표 1 참조)

행정구역이 분할되었을 경우 인구이동 조사는 세분된 지역에 대한 것이므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변동전 행정구역에 대한 인구이동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행정구역변경이 이동인구 추정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과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이 제거된 인구이동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과거의 행정구역에 맞는 세분된 인구이동자료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변경이 이동인구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추정할 수 없다. 또한, 199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행정구역 변동의 영향을 수정 혹은 제거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1990-95년의 행정구역 변경이 이동인구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고안하고, 이에 의해 최근의 바른 인구이동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연구방법 및 제한

일정기간중 행정구역의 개편이 인구이동의 추정치에 주는 영향을 분리해 내는 한 통상적인 방법은 최근 총조사 시점의 행정구역을 개편이전의 행정구역과 같도록 하고, 여기에 같은 이동인구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이동인구(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제거된 이동인구)와 행정구역 개편후의 이동인구 추정치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이동인구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라함은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과는 관계가 없는 단지 이동인구 추정상의 영향만을 뜻한다.

5년전 거주지 조사는 현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의 방향이 한 행정단위를 2개 이상의 행정단위로 분할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 적용에 별문제가 없으나,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이 1990-95년의 경우처럼 2개이상의 행정단위를 1개행정단위로 통합하는 것일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995년 통합시의 동부와 군부는 1990년 당시에는 각기 독립된 시와 군 혹은 군의 일부이었으므로 이들 지역간의 이사는 인구이동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1985-90년의 인구이동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의 동부(통합전 독립된 시)와 군부(통합전 독립된 군) 혹은 군의 일부간의 1990-95년 기간중 인구이동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1995년 총조사자료에서는 통합시의 동부와 군부간의 이동은 인구이동의 정의상 구·시·군간의 이동이 아니며

로 인구이동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또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도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방법보다 자료면에서 이용가치는 적지만 거의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전술한 방법과는 반대로 1990년의 행정구역을 개편후인 1995년과 같게 하여 인구이동을 측정하고, 이 새로운 이동인구 측정치를 1990년의 실제 행정구역에 의한 인구이동 측정치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통합시의 동부와 군부는 통합전 각기 독립된 시와 군이었으므로 이 동부와 군부간의 이동이 1990년조사에서는 이동인구에 포함되었으나 1995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들이 이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990년 당시 이들 시와 군간의 이동(즉 통합시의 동부와 군부간의 이동)을 당시의 이동인구에서 모두 제외시키고(이후 수정자료라 칭함) 1990년 조사의 이동인구 추정치와 비교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1990년 조사이전 시행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인구이동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이 1990년 조사의 수정된 자료와 1995년 조사에 의한 인구이동 추정치를 비교할 경우 최근의 인구이동 추세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추세파악을 위한 시계열 자료로서 1985-90년과 1990-95년의 두 기간 자료밖에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용가치가 적다. 그러나 이 방법이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중 이번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이 방법에 있어서의 제한점은 구·시·군 경계의 변동중 변동의 내용이 구·시·군 아래수준의 행정구역 즉, 동·읍·면과 리일 경우 이 지역과 해당군의 여타지역간의 인구이동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측정할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구역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이나 인구이동의 추세파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1990-95년 기간 구·시·군 경계변동의 내용이 동·읍·면과 리인 경우는 관련된 인구수가 총인구의 1.0%에 불과한데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제외할 경우 그 구성비가 0.8%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 측정의 정확성을 보완하였다. 현재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행정구역개편전 경남 양산군의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등이었으므로 이들 지역과 양산군의 여타 지역간의 인구이동은 1990년 조사 당시에는 인구이동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이들 지역과 경남 도내의 여타 시·군간의 인구이동은 시·도내 인구이동, 이들 지역과 부산과의 인구이동은 시·도간 인구이동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1995년 조사에서는 이들 지역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되었으므로 이들지역과 양산군(여타지역) 및 경남의 여타 시·군 인구이동은 시·도간 인구이동이 되고, 또한 이들 지역과 부산광역시의 다른 구간의 인구이동은 시·도내 인구이동이 된다. 따라서 1995년 조사에서 기장군과 관련된 이동인구수를 파악하여 인구증가를 감안한 다음 이에 따라 1990년의 이동인구수를 증감 혹은 재배치하였다.(부록 표 2 참조)

### 3.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

표 3.1은 2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 방법에 의해 수정된 1985-90년 기간의 총이동인구, 시·

표 3.1: 1995년 행정구역변경<sup>1)</sup>이 이동인구추정에 미치는 영향, 1985-90.(단위:인)

	총이동 <sup>2)</sup>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수정전	186,458	83,982	102,476
수정후	183,092	81,573	101,519
차 <sup>3)</sup>	-3,366	-2,409	-957
(%)	-1.8	-2.9	-1.0
(이동율, %) <sup>4)</sup>			
수정전	24.1	10.8	13.2
수정후	23.6	10.5	13.1
차	-0.5	-0.3	-0.1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 %)			
수정전	100	45.0	55.0
수정후	100	44.6	55.4
차	0	-0.4	0.4

주: 1) 읍·면 이상의 행정단위 구역변경만을 고려함

2) 5년전 거주지가 해외인 이동인구(1,197) 제외

3) 차=수정후-수정전

4) 분모는 2%표본 1990년 5세이상 총 인구수(775,101)

자료: 통계청, 1990년 인구총조사 2% 자료테잎

(이동인구추정치로는 의미없음)

도내 및 시·도간 이동인구와 이동율의 추정치를 행정구역 개편전의 이동인구 및 이동율과 비교한 것이다. 이들 두 추정치간의 차이는 행정구역개편이 1985-90년 기간 중에 있었다는 가정하에서 행정구역개편의 영향을 보여준다.

자료상의 제약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1990-95년의 이동인구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1985-90년과 1990-95년의 이동인구를 비교할 때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수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총이동인구수 및 구성비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이 1990-95년의 이동인구 추정에 미치는 영향도 대체로 1985-90년 이동인구의 경우와 같은 방향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총이동인구수는 1.8%가 감소하였고, 시·도내 이동수는 2.9%가 시·도간 이동수는 1%가 감소하여 예상한 대로 시·도내 이동수에서 더 큰 감소를 보였다. 총인구에 대한 이동율로는 시·도내 이동율에서 0.3%포인트 시·도간 이동에서 0.1%포인트 감소하여 이들을 합한 총이동율은 0.5%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총이동에 대한 시·도내이동 및 시·도간 이동인구의 구성비는 행정구역변경으로 시·도내 이동이 0.4%포인트 감소하고 시·도간 이동이 0.4%포인트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다.

표 3.2에서는 1990-95년과 같은 행정구역의 변경이 1985-90년 기간중에 있었다는 가정

표 3.2: 1995년 행정구역 변경이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에 미치는 영향, 1985-90.(단위:인)

	시부→시부	시부→군부	군부→시부	군부→군부	계
수정전	125,640	14,235	40,626	5,957	186,458
수정후	137,579	11,126	30,959	3,428	183,092
차	11,939	-3,109	-9,667	-2,529	-3,366
(%)	9.5	-21.8	-23.8	-42.5	-1.8
(시·군부 인구에 대한 이동율, %) <sup>1)</sup>					
수정전	21.9	2.5	20.2	3.0	24.1
수정후	21.6	1.7	22.1	2.5	23.6
차	-0.3	-0.8	2.2	-0.5	-0.5
(총인구에 대한 이동인구의 비율, %)					
수정전	16.2	1.8	5.2	0.8	24.1
수정후	17.7	1.4	4.0	0.4	23.6
차	1.5	-0.4	-1.2	-0.4	-0.5
(총이동인구에 대한 구성비, %)					
수정전	67.4	7.6	21.8	3.2	100
수정후	75.1	6.1	16.9	1.9	100
차	7.7	-1.5	-4.9	-1.3	0

주: 1) 분모(출발지의 인구수)는 2%표본 5세이상시부 및 군부인구수

	시부	군부
수정전	574,430	200,671
수정후	636,956	138,145
1995	638,065	121,452*

\* 통합시의 읍·면 인구 불포함

이외의 사항은 표 3.1의 주석 참조

자료: 표 3.1 참조

하에, 1985-90년 기간의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예상한 대로 행정구역의 변동에 의해 총이동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부→시부 이동수는 9.5%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았으며 군부→군부 이동수는 42.5%가 감소하는 큰 영향을 받았다. 그외 행정구역 개편이 시부→군부 이동과 군부→시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인구이동수를 21.8%와 23.8% 감소시키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영향을 시·군부 인구에 대한 각 이동율로 보면 시부→시부 이동의 경우 인구이동수를 증가시키는 영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율은 시부인구수의 증가 때문에 21.9%에서 21.6%로 0.3%포인트가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으며, 군부→시부 이동의 경우 그 영향은 이동수가 23.8%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인구의 감소때문에 이동율이 20.2%에서 22.4%로 2.2%포인트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부→군부와 군부→군부 이동의 경우 행정구역의 변경은 이동을 이 각각 0.8%포인트와 0.5%포인트씩 감소되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변경이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5세이상 총인구에 대한 각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비율을 보면 시부→시부 이동의 경우 개편전 16.2%에서 개편후 17.7%로 1.5%포인트가 증가시켰고, 시부→군부 이동의 경우 1.8%에서 1.4%로 0.4%포인트, 군부→시부의 경우에는 이동율은 증가하였으나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5.2%에서 4.0%로 1.2%포인트, 군부→군부의 경우는 0.8%에서 0.4%로 0.4%포인트가 감소하였다.

행정구역 개편이 총이동에 대한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구성비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이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부→시부 이동에서 7.7%포인트가 증가하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군부→시부 이동은 4.9%포인트 감소하여 두 번째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시부→군부와 군부→군부 이동의 경우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가 감소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볼 때 1990-95년 행정구역의 변경은 전체 이동의 규모나 이동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동형태별 이동수와 이동율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4. 최근 인구이동 추세의 변동

1990-95년 기간중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이동 추정치에 영향을 주어 인구이동의 추세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음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3장에서는 이 대규모 행정구역개편이 인구이동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1985-90년 이동인구를 변경된 행정구역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이동인구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1985-90년 수정 이동인구 추정치와 1990-95년 이동인구 추정치를 비교한다면, 비록 두 기간의 비교이지만, 행정구역이 일치함으로써 행정구역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좀더 정확한 인구이동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3.1과 표 4.1을 보면 행정구역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총이동의 증가가 6.5%이고, 행정구역변경의 영향을 제거했을 경우 총이동 증가는 8.5%임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최근 총이동의 증가가 2.0%포인트 낮게 추정됨을 알 수 있다.

표 4.1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추정된 총인구이동의 최근 추세변동을 보여준다. 총이동인구수는 1985-90년~1990-95년 기간동안 8.5% 증가하였고, 시·도내 이동은 7.2%, 시·도간 이동은 9.5% 증가하여 시·도간 이동이 더 큰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이동율로 보면 총이동율이 1.1%포인트 증가하였고, 이를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보면 0.4%포인트와 0.7%포인트가 각각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의 구성비도 시·도내 이동이 0.6%포인트 감소하고 시·도간 이동이 0.6%포인트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표 4.2는 행정구역개편의 영향을 제거한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최근 추세변동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수의 추세변동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추세는 시부→군부 이동인구가 20.4%라는 큰 비율로 증가한 것과 군부→시부 이동인구가 22.9%라는 큰 비율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시부→시부이동은 15.2%증가하였고 군부→군부 19.9%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변동은 지금까지의 시부와 군부간의 인구이동 패턴에서 군부

표 4.1: 인구이동의 추세변도총이동인구, 1985-95

	총이동 <sup>1)</sup>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1985-90 <sup>2)</sup>	183,092	81,573	101,519
1990-95	198,572	87,432	111,140
차	15,480	5,859	9,621
(%)	8.5	7.2	9.5
(이동율, %) <sup>3)</sup>			
1985-90 <sup>2)</sup>	23.6	10.5	13.1
1990-95	24.7	10.9	13.8
차	1.1	0.4	0.7
(총이동에 대한 구성비, %)			
1985-90 <sup>2)</sup>	100	44.6	55.4
1990-95	100	44.0	56.0
차	0	-0.6	0.6

주: 1) 5년전 거주지가 해외인 이동인구(1990: 1,197; 1995: 2,014) 제외

2) 1990-95년 행정구역 개편을 감안한 수정치

3) 분모는 2%표본 5세이상 총 인구수(1990: 775,101; 1995: 804,517)

자료: 표 3.1 및 통계청 1995년 인구총조사 2% 자료태일

(이동인구추정치로는 의미없음)

의 순전출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부와 군부인구에 대한 이동율을 비교하여 보면 시부→시부이동은 21.6%에서 24.9%로 3.3%포인트, 시부→군부이동은 1.7%에서 2.1%로 0.4증가하였으나, 군부→군부이동은 2.5%에서 2.3%로 0.6%포인트, 군부→시부의 이동은 22.4%에서 19.6%로 2.8%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이동율에 있어서의 3.8%포인트 감소는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이동인구 추정에서 통합시는 하나의 단위시이기 때문에 이동인구 정의상 통합 시내의 읍·면과 관련된 이동인구를 군부 이동인구로 따로 분리할 수 없어 모두 시부의 이동인구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들 이동을 계산에서 분모로 사용된 군부인구는 통합시의 읍·면 인구(광역시 등의 군인구와는 관계없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총이동인구에 대한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구성비는 앞에서의 이동수 및 이동율 추세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 대로 시부→시부 이동과 시부→군부 이동은 구성비가 각각 4.8%포인트와 0.6%포인트 증가하였고, 군부→시부와 군부→군부 이동의 구성비는 4.9%포인트와 0.5%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부→시부이동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도·농간의 이동에서 시부→군부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군부→시부 이동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과거 주요한 이동의 흐름이었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흐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추세변동

	시부→시부	시부→군부	군부→시부	군부→군부	계
1985-90 <sup>1)</sup>	137,579	11,126	30,959	3,428	183,092
1990-95	158,577	13,391	23,859	2,745	198,572
차	30,998	2,265	-7,100	-683	15,480
(%)	15.2	20.4	-22.9	-19.9	8.5
(시·군부 인구에 대한 이동율, %) <sup>2)</sup>					
1985-90 <sup>1)</sup>	21.6	1.7	22.4	2.5	23.6
1990-95	24.9	2.1	19.6	2.3	24.9
차	3.3	0.4	-2.8	-0.2	1.3
(총인구에 대한 이동인구의 비율, %)					
1985-90 <sup>1)</sup>	17.7	1.4	4.0	0.4	23.6
1990-95	19.7	1.7	3.0	0.3	24.9
차	2.0	0.3	-1.0	-0.1	1.3
(총이동 인구에 대한 구성비, %)					
1985-90 <sup>1)</sup>	75.1	6.1	16.9	1.9	100
1990-95	79.9	6.7	12.0	1.4	100
차	4.8	0.6	-4.9	-0.5	0

주: 1) 표 4.1의 주석 2 참조

2) 표 3.2의 주석 참조

이외의 사항은 표 3.1의 주석 참조

자료: 표 3.2 및 통계청 1995년 인구총조사 2% 자료태입

(이동인구추정치로는 의미없음)

표 4.3는 각 시·도의 인구이동이 전국 군부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한 1990-95년 기간 각 시·도의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변동이 전국 시·군부간 인구이동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작성된 분석표이다.

먼저 군부의 순이동인구의 규모는 1985-90년 순전출 1,586천명에서 1990-95년 순전출 191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 군부인구에 대한 이동율로 볼때는 1985-90년 -15.2%에서 1990-95년 -2.1%로 순전출율이 13.0%포인트나 감소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이러한 시·군부간 이동추세의 변동을 선도하는 지역은 두 기간의 이동을 차이가 큰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로서 전국 이동율차의 구성비를 볼 때 각각 25.3%, 14.6%, 14.4%, 1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는 그 시·도 인구와 비교할 때 부산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없다. 반면 구성비가 특별히 낮은, 즉 1990년 인구구성비보다 25%이상 낮은 시·도는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으로 이들 시·도의 군부지역은 전국 군부 순전출인구의 감소에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한 것으로



표 4.3: 시·도의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 변동, 1985-95

지역	1985-'90				1990-'95				1985-'90 ~1990-'95	
	지역	전국	지역	군부	지역	전국	지역	군부	이동율 <sup>1)</sup>	이동율 <sup>1)</sup>
	→	→	→	순이동	→	→	→	순이동		
시부	군부	군부	시부	시부	군부	군부	시부	순이동	의 차	구성비
서울	239	559	-320	-3.1	245	224	21	0.2	3.3	25.3
부산	74	186	-113	-1.1	130	56	74	0.8	2.0	14.6
대구	55	168	-113	-1.1	64	79	-15	-0.2	0.9	7.0
인천	24	121	-97	-0.9	34	71	-38	-0.4	0.5	3.9
광주	27	115	-89	-0.8	33	83	-59	-0.6	0.3	2.1
대전	22	102	-80	-0.8	25	83	-59	-0.6	0.1	0.9
경기	76	356	-281	-2.7	152	224	-73	-0.8	1.9	14.4
강원	39	68	-30	-0.3	35	47	-13	-0.1	0.1	1.1
충북	15	79	-64	-0.6	27	53	-27	-0.3	0.3	2.4
충남	20	47	-27	-0.3	25	20	5	0.1	0.3	2.4
전북	20	101	-82	-0.8	34	52	-18	-0.2	0.6	4.5
전남	24	69	-46	-0.4	27	42	-16	-0.2	0.3	2.0
경북	47	131	-85	-0.8	56	45	10	0.1	0.9	7.1
경남	47	198	-151	-1.4	81	69	11	0.1	1.4	12.0
제주	6	21	-15	-0.1	7	16	-10	-0.1	0.0	0.3
계	743	2328	-1586	-15.2	982	1173	-191	-2.1	13.0	100.0

주: 1) 이동율=(지역 군부순이동/전국 군부총인구, 5세이상)\*100

자료: 통계청, 1990 및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인구이동편

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시·도의 이동율 차이(1990-95년 이동율 - 1985-90년 이동율)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양수값인 것으로 볼 때, 군부 순전출인구 감소추세는 예를 들어 서울 등 일부 한정된 지역의 인구이동 추세의 변화의 결과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시·도에서 같은 방향의 이동추세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인구이동 추세의 변화를 종합하면, 먼저 총이동인구수와 이동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시·도간 이동이 더 큰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이동형태별로 볼 때 시부→군부 이동인구가 69.6%라는 큰 비율로 증가하고 군부→시부 이동인구가 27.2%라는 큰 비율로 감소한 것이 주목할만한 추세변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군부간 인구이동의 변화추세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시·도에서 같은 방향의 이동추세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1990-95년 기간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의 인구이동 추정방법상 이동인구 추정치에 영향을 주어 인구이동추세 파악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1995년 인구총조사 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인구이동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근의 인구이동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방법을 시험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95년 기간의 행정구역 개편은 1985-90년 이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총이동인구수에서 1.8%, 시·도내 이동인구수에서 2.9%, 시·도간 이동인구수에서 1%를 각각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동수를 감소시켰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형태별로 보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시부→시부 이동은 9.5% 증가하였고, 군부→군부 이동은 42.5%, 시부→군부 이동 21.8%, 군부→시부 이동 23.8%씩 감소시키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이동 추세의 변동을 보면 행정구역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였을 때 총이동 인구수는 1985-90년~1990-95년 기간동안 8.5% 증가하였고, 시·도내 이동은 7.2%, 시·도간 이동은 9.5% 증가하여 시·도간 이동이 더 큰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수의 추세변동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추세는 시부→군부 이동인구가 20.4%라는 큰 비율로 증가한 것과 군부→시부 이동인구가 22.9%라는 큰 비율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시부→시부이동과 군부→군부 이동은 각각 큰 증가(15.2%)와 큰 감소(19.9%)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변동은 지금까지의 시부와 군부간의 인구이동 패턴에서 군부의 순전출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부와 군부인구에 대한 이동율을 비교하여 보면 시부→시부이동은 21.6%에서 24.9%로 3.3%포인트, 군부→군부이동은 0.2%포인트, 그리고 시부→군부이동은 0.4%포인트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군부→시부의 이동은 2.8%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이동율에 있어서의 2.8%포인트 감소는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부→시부 이동율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도·농간의 이동에서 시부→군부의 이동율이 다소 증가하고 군부→시부 이동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과거 주요한 이동의 흐름이었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흐름에 큰 변화가 온 것이 최근 인구이동 추세변동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시·군부간 인구이동의 추세변동을 보면 먼저 군부의 순이동인구의 규모는 1985-90년 순전출 1,586천명에서 1990-95년 순전출 191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 군부인구에 대한 이동율로 볼때는 1985-90년 -15.2%에서 1990-95년 -2.1%로 순전출율이 13.0%포인트나 감소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이러한 시·군부간 이동추세의 변동을 인구대비 비중면에서 선도하는 지역은 부산과 경남이었다. 그러나 두 기간 각 시·도의 이동을 차이가 모든 시·도에서 양수값으로 나타나 군부 순전출인구의 감소추세가 일부 한정된 지역이 아닌 모든 시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록

표 1: 각 급 행정단위수의 변동, 1960-95

행정구역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대도시 <sup>1)</sup>	1	2	2	2	2	4	6	6
구	9	15	15	19	26	37	56	65
시	26	30	30	33	38	41	67	67
군	134	139	140	138	139	139	137	98
구·시·군·계	169	184	185	190	203	217	260	230

주: 1) 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과거의 직할시

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전·출입 인구, 1990-95

	총이동	시도외 이동						
		시도내 이동	계	경남시	경남군(양산제외)	양산	그외 시	그외 군
전입	320	203	117	52	9	15	35	6
전출	90	26	64	25	0	16	20	3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자료테잎

참고문헌

- [1] 김남일 최순 박우순 양기석 (1997).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인구의 특성변화>, 서울: 통계청
- [2] 내무부 (1996). <지방행정구역요람>, 서울
- [3] 한국행정구역총람 편찬회 (1995). <한국행정구역총람, 1995>, 서울: 한국행정문화원

[ 1998년 2월 접수, 1998년 6월 최종수정 ]

## Measuring the changes in the trend of urban and rural migration in Korea

Nam Il Kim<sup>1)</sup>

### ABSTRACT

There was a large reform in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1990-95, which might influence the estimates of migratio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migration. An indirect method has been worked out in this paper to measure the influence of the district reforms on migration estimation and to provide more accurate recent trend of migration.

The district reform during 1990-95 tended to decrease the estimate of total migrants and influenced substantially the estimates of migrants between urban and rural. When the influences of district reform were removed, it was found that total migrations increased by 8.5%, between two periods 1985-'90 and 1990-'95, and the net migrants in the rural areas reduced drastical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change in migration trend between urban and rural was no more a local but a nation wide phenomenon.

---

1) Professor, Applied Statistics Department, Dong-A University. 840 Hadan 2-Dong, Saha Gu, Pusan, 604-714 Korea.